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151>

JCCT 2022-7-20

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을 통해 공모전 참여 동기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ollege Students on the Participate Motivation to the Contest through Self-determination factors

이신복*, 박찬욱**

Sin-Bok Lee*, Chanuk Park**

요약 최근 대학생들에게 공모전은 취업을 위한 중요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이때 대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정서 및 심리적 욕구를 독립되도록 도와주지 않고 의사결정과 표현을 억압하여 자율성의 발달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을 통해 공모전 참여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기결정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성취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공모전 참여 동기 중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동기와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주요어 : 대학생, 부모의 심리적 통제, 자기결정성, 참여 동기

Abstract Recently, contests for college student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factor in employment through self-development, and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on college students can prevent the development of autonomy by suppressing decisions and expressions without helping their children become independent.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find out how the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affects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the contest through self-determin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separation anxiety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negatively affects only the competence among self-determination. Second, it was found that achievement-orient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had a negative effect on all factors of self-determin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among self-determination factors, compet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pleasure, financial reward, and recognition of others, and a negative effect on a sense of accomplishment. Fourth,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among self-determination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pleasure, financial compensation, and recognition of others. The results of this will be used as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motivation of college students to participate in the contest and the psychological control of their parents.

Key words : College Students,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Contest, Self-determination

*정회원,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초빙교수 (제1저자)

**정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센터 연구위원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30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일

Received: May 30, 2022 / Revised: June 25, 2022

Accepted: July 2, 2022

**Corresponding Author: chanukpark@kcti.re.kr

Research Fellow,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Seoul, Korea

1. 서론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깨닫고 평생동안 만족하며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고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청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현대는 고도로 복잡하고 세분화된 지식정보의 시대로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과거 각광을 받던 직업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과거에 전망이 어두웠던 분야가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변화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향후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마주하게 될 사회에서의 직업 세계는 과거, 현재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직업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며 직업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은 과거처럼 수동적으로 혹은 틀에 박힌 사고를 주입하는 교육보다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창의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다 자발적인 역량에 가까울 것이다.

대학생이라는 시기는 인생의 전반적인 흐름에서 보았을 때, 청년후기의 발달단계에 속하고, 자아상의 확립, 자아정체감, 심리적 독립 및 자율이라는 전인적 발달과업을 뜻하고 직업을 결정하기 전 진입을 준비하는 단계이다[19, 40].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대학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인기 삶을 좌우하고, 미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46]. 한국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함양해야 할 지식과 태도를 연마하게 만든다면, 대학에서의 교육은 그러한 내용뿐 아니라 전공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화된 지식과 태도를 연마하고 나아가 자신이 가질 미래의 직업을 체험하는 등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생으로서 함양해야 할 자질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하고 자료를 찾고 배우는 자발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교에서는 수업시간표부터 모든 자신이 직면한 선택 및 진로를 능동적으로 계획하고 성취해야 하고, 취업을 위한 경력을 쌓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여러 공모전에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확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인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 보다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많아 대학 입학 후 자신의 진로 또는 정체성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다. 특히 최근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은 학생들이 대학교에 진학하였음에도 중고교 학생 시절과 차별화되는 자율적인 배움과 인간관계 형성의 기회를 잃게 만들어 많은 우려를 낳았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방식을 선택하였으며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대학 내에서의 활동은 금지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 대학의 문화를 배울 수 있었던 MT, 동아리활동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활동을 준비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마치 고등학교의 연장선처럼 부모의 통제 하에 진로 준비와 학습을 하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 분야에서 부모의 역할은 과거부터 매우 강조되어 왔다. 부모와의 애착 형성은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언급된다[24]. 예전에는 청소년기 부모의 심리적 영향이 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대학생 이상의 청년기 부모의 심리적 영향도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부모가 대학생 시기의 자녀에게도 경제적 및 주거 지원을 지속하는 등 자녀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다[12, 47]. 대학생 시기가 청소년 시기와 다른 점은, 대학생 시기에는 독립의 욕구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32], 대학생 시기의 부모가 심리적 통제하는 것은 자녀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25], 자아정체성 확립[36], 내면 문제[7] 등 전반적인 영역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대학생에 대한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과도하다면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코로나19와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 혹은 부모의 적절한 수준의 심리적 통제는 오히려 대학생 자녀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기 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을 적용하여 대학생들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 결정성 이론은 Deci와 Ryan(1985)에 의해 제안되었는데, 이는 인간의 기본 심리 욕구인 유능감, 관계성, 자율성이 충족될 경우 자발적 동기가 생겨나는 것으로 본다[37]. 이를 살피는 데는 다른 무엇보다 대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경험을 살피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불황'이라는 단어가 지속되는 현재를 사는 한국 대학생들에게 있어 공모전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정도는 도전할 생각을 가질 정도로 취업을 위한 좋은 경력, 그리고 경험으로써 인지되고 있다[6]. 특히 공모전 참여는 취업을 위해 장려는 되지만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획득하는 형태의 커리어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의 공모전 참여 동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피고자 한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라는 기존의 가정 요인의 영향력을 살피는 한편 인간의 자발적 동기 발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핌으로써 대학생 심리 변화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로를 찾고 꿈을 찾아가는 청년들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의 심리적 통제(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지난 수십 년 간 많은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녀의 발달을 미치는 긍·부정의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다양화하고 분류를 세분화하여 정의하였다[9]. 학자들은 양육을 크게 통제 차원 및 수용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Becker(1964)은 양육행동의 초기연구자로 부모가 자녀를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양육행동은 애정을 없애고, 실망을 나타내며, 죄책감을 자녀에게 심어주고,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리적 통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37]. Steinberg(1990)는 통제 행동을 행동적 및 심리적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려 하였다[5]. Barber(1996) 역시 Steinberg가 제안한 통제차원의 양육태도를 행동적 및 심리적 통제로 나누었다. 우선 심리적 통제는 어느 정도 자란 자녀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생각하거나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 자녀의 감정, 사고, 자기표현 등을 억제하거나 무시하며 부모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통제를 심리적 및 정서적으로 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심리적 통제가 심한 경우 자녀는 우울 증상 또는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고 궁극적으로 부정적인 발달이 일어나게 되므로, 자녀의 자율적인 발달과 형성이 이뤄지지 못하게 되므로 자기 신뢰 및 자신감이 하락된다[30, 38, 39]. 다음으로 행동적 통제는 자녀의 생활 태도나 행동에 규칙을

정하고 규칙을 따라 자녀가 행동하도록 통제하여 자녀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되는데, 행동통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이 이루어져 외현화 문제가 감소되는 등의 효과가 있다[2, 3].

2.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욕구

과거 인간의 동기를 다룬 초창기 연구자들은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크게 외부 요인과 내부 요인의 두 가지를 살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보상, 처벌, 통제, 경쟁 등이 대표적이고 이로 인해 유발된 동기를 외재적 동기라고 하는데 비해, 내부적인 요인인 즐거움 및 흥미 등에 의해 촉발된 동기를 내재적 동기라 한다[29]. 외재적 동기는 행동을 자극하는 힘의 근원이 외부에서 비롯되며 어떤 보상이나 외재적 목적 없이는 행동하지 않는다. 한편, 내재적 동기는 개인 내부에서 힘의 근원이 비롯되며 과제 그 자체에 대한 흥미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족 및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어서 두 가지 동기는 상호 보완적으로 볼 수 있다[10, 33].

하지만, 이분법적으로 동기 개념을 나누는 시각에 대해 1980년대 이후 의문이 제기되었고, Deci와 Ryan(1985)은 동기를 이분법적으로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동기가 동시에 높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두 가지 동기를 개념화하고 대안적 자기결정성이론을 주장하였다[34]. 학자들은 동기를 유형에 따라 외재동기, 내재동기, 무동기의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자율성이 낮은 순으로 세분화하여 6가지인 무조건, 외적조건, 내사된 조건, 확인된 조건, 통합된 조건, 내재적 조건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22]. 한편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개인의 동기가 촉진되거나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28]. 개인의 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관계성(Relatedness),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의 세가지 기본적인 욕구들이 제시된다[22]. 이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는 다른 욕구 보다 우선적으로 상황에 따라 충족되기도 하고, 한 가지 욕구가 다른 욕구보다 더 충족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34], 각 유형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다[44].

3. 공모전 참여 동기(motive)

‘동기’란 동기는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쉽게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으나[8], 대체적으로 스스로 행동을 실행하고 방향을 세우고 방향에 따라 행동을 유지하려는 심리상태라고 볼 수 있다[21]. 대학생들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동기는 크게 이타적 동기와 이기적 동기로 구분 가능한데, 먼저 이타적 동기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헌신을 의미하고, 이기적 동기는 성취욕구나 자아실현 등의 자아지향성을 띤다.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에 따르면 개인은 어떤 결과에서 야기되는 이익과 가치를 고려하고 이때 자신의 노력으로 이익이 더 상승한다고 생각될 경우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27].

III. 연구방법

1. 표본설계와 측정도구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대학생의 자기결정성을 통해 공모전 참여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그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공모전에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3월 2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연구자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연구목적과 내용을 설명해 동의를 얻고 이용자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받았다. 최종 250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기록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중심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보인 응답지 4부는 통계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총 246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요인들의 측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들이 수정되어 활용되었다. 부모의 심리적 통제, 대학생의 자기결정성, 공모전 참여동기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측정도구들을 구성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1. 측정항목

Table 1. list of measurement

변수	측정 항목	근거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	부모님은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내는 편이다.	[42]
	부모님은 내가 어떤 일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려 하지 않으면 나에게 실망감을 나타내는 편이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만, 부모님은 내 문제에 간섭 하시는 것을 좋아 하시는 편이다.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	부모님은 내가 실수를 하면 실망스러워 하시는 편이다.	[42]
	부모님은 내가 높은 기대치를 달성하려고 애쓸 때 나를 더 인정해주는 편이다.	
	부모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남보다 뛰어난 때만 나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편이다.	
자율성	나는 대체로 내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느끼는 편이다.	[31, 33]
	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통제 받고 억압을 받는다고 느끼지 않는 편이다.	
	내 일을 진행하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많은 편이다.	
유능성	나는 내 자신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느끼는 편이다.	[31, 33]
	나는 대부분 내가 하는 일들로부터 성취감을 느끼는 편이다.	
	나는 내가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느끼는 편이다.	
관계성	나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는 것을 느끼는 편이다.	[31, 33]
	나는 주변사람들과 나는 평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편이다.	
	내 주변 사람들은 평소에 나와 감정을 공유할 때가 많은 편이다.	
즐거움	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기분 좋다.	[18, 41]
	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재미있다.	
	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것이 흥미롭다.	
성취감	나는 공모전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18, 41]
	나는 공모전에 참여과정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려운 공모전 과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금전적 보상	나는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인센티브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한다.	[18, 41]
	나는 나의 능력 및 가능성을 알리고 경력 관리를 위해 공모전에 참여한다.	
	나는 주요 수입 혹은 보조적 수입을 위해 공모전에 참여한다.	
타인의 인정	나는 명성을 얻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한다.	[18, 41]
	나는 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해 공모전에 참여한다.	

2. 연구가설

1)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

자녀의 자기결정성 동기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일관되게 보고되었다.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중 행동통제와 달리 심리적 통제는 자녀에게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다고 연구되었다[43].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일상 행동을 통제하는 것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 배제되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가 지시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며, 심리적 통제가 자녀의 자기결정성 동기 및 자기주도성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29, 34]. 자기결정성 동기는 부모의 양육방식으로부터 결정되는 영역이 크며, 특히 아동기에 심하게 가해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자녀의 자기결정성 동기가 내사된 조절 또는 외적조절처럼 외재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해준다. 한편 아동들 중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아동은 자기주도적인 판단이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 또는 조절하는 것이 미흡하여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환경적 요소에 더 영향을 받기가 쉽다. 자녀가 인식하는 환경적 압박 요인은 개인의 자기결정성 동기에 끼치는 영향이 있고 이는 다시 자율감과 같은 자기결정성 동기가 다른 영역의 성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17]. 게다가 아동기에 가해지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강할수록 자녀의 자기결정성 동기는 외적 동기 또는 외부적 동기 등의 외재적 형태로 만들어 질뿐만 아니라 아동기의 영향은 청소년기의 자기결정성 동기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통제를 받은 자녀가 청소년기까지 성장하면 내재적 동기가 높아지거나 자율성이 증가한다기 보다는, 연령이 증가하거나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기결정성이 점차 낮아진다고 해석하였다. 자기결정성이 학년이나 연령 증가에 따라 하락한다고 본다[11]. 또한, 자녀가 인식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클수록 제약이나 압력, 외적 보상에 따르기 위해 과제를 타율적인 행위로 수행하기 때문에 자기결정성이 낮아진다고 연구되었다[11, 35]. 이에 따라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1-1 :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인지된 자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인지

된 유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 부모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인지된 관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인지된 자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2 :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인지된 유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 부모의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대학생의 인지된 관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자기결정성과 참여 동기의 관계

Deci와 Ryan(1985)이 제안한 자기결정이론은 인간이 행동을 하고 그 방향을 선택하는 동기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동기 이론(motivation theory)이다. 자기결정성의 수준은 자신이 행동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통제 가능하다고 인지하는 수준을 의미하며, 이 수준에 따라 동기의 정도가 다르다는 이론이다. 자기결정이론은 기본 심리 욕구가 자기결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는 세 가지 요인인 관계성(Relatedness), 자율성(Autonomy), 유능성(Competence)으로 나누어지고 내재적동기는 자기결정성을 통해 자기된다고 설명한다[10, 11].

먼저,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점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성향을 뜻한다[35]. 관계성에 대한 욕구는 다른 사람과 자신이 만드는 관계가 의미 있고, 이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의미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되었다고 인식할 경우 내재적 동기는 아주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자율성은 사람이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할 경우, 선택 의지를 스스로 가지고 행동을 자율적으로 하려는 욕구로 설명된다[33]. 자율성은 자신에게 자신 행동의 원인이 있다고 인지하고 행동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믿음으로 자기결정성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20].

마지막으로 유능성이란 개인이 환경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자신의 기술 및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경험에 따라 생기는 신념을 뜻한다[11]. 이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유능성에 대한 욕구가 만족되고 내적 동기가 커지는 반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경우 유능성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며 내적

동기가 하락될 수 있다[31].

대학생들은 공모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성취감 또는 즐거움 등의 내적 만족이나 금전적 보상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의 역량(유능성)의 자기진단과 자율성의 인식이나, 관계성이 참여 동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1].

Zhao와 Zhu(2014)는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에서 자기결정력이 높은 참여자들일수록 시간을 들여 많이 노력하고 성취감도 높아진다고 설명하였고 참여자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에서는 외재적 동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관계에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관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26]. 게다가 크라우드소싱 참여자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아이디어를 반영한 서비스나 제품의 형태를 만들어 내면 상용화되고 경제적 이득도 함께 동반되며 이때 직/간접적 보상뿐만 아니라 기여 의도 등 외재적 요인으로 더 자극을 받게 된다고 보고한다[1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H3-1 : 대학생의 인지된 자율성은 공모전 참여의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 대학생의 인지된 자율성은 공모전 참여의 성취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 대학생의 인지된 자율성은 공모전 참여의 금전적 보상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4 : 대학생의 인지된 자율성은 공모전 참여의 타인의 인정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 대학생의 인지된 유능성은 공모전 참여의 즐거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2 : 대학생의 인지된 유능성은 공모전 참여의 성취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3 : 대학생의 인지된 유능성은 공모전 참여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4 : 대학생의 인지된 유능성은 공모전 참여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1 : 대학생의 인지된 관계성은 공모전 참여의 즐거

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2 : 대학생의 인지된 관계성은 공모전 참여의 성취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3 : 대학생의 인지된 관계성은 공모전 참여의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5-4 : 대학생의 인지된 관계성은 공모전 참여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기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의 가설을 개별적으로 검증하는 대신 복잡한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분산 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이 이용되었다. 분석을 위한 도구로 SPSS 20.0과 AMOS 20.0이 이용되었다.

IV.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총 246명의 표본 중 성별로는 남성 93명(37.8%), 여성 153명(62.2%)로 나타났다. 또한, 학년으로는 1학년 63명(25.6%), 2학년 52명(21.1%), 3학년 63명(25.6%), 4학년 68명(27.6%)로 나타났으며, 공모전 참여횟수로는 1~2회는 28명(11.4%), 3~5회는 102명(41.5%), 6~10회는 71명(28.9%), 11회 이상은 45명(18.3%)로 나타났다.

2. 측정 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최종 수집된 데이터(n=246)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측정항목의 신뢰성 검사와 타당성 검사가 있다[15]. 이 중 타당성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 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통한 측정항목의 타당성 검사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Cronbach's α 계수(0.7 이상)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중 요인 적재값을 집중타당성 검증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요인적재량은 ± 0.4 이상이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15, 16].

표 2. 측정항목의 신뢰성과 타당성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measurement items

변수	측정항목	요인적재량	측정오차	Cronbach's α	C.R	AVE
분리불안심리적 통제	분리3	0.632	0.366	0.733	0.801	0.574
	분리2	0.723	0.37			
	분리1	0.721	0.335			
성취지향심리적 통제	성취3	0.892	0.1	0.894	0.937	0.832
	성취2	0.922	0.081			
	성취1	0.783	0.276			
자율성	자율3	0.757	0.355	0.772	0.838	0.632
	자율2	0.711	0.308			
	자율1	0.724	0.269			
유능성	유능3	0.91	0.155	0.823	0.821	0.607
	유능2	0.721	0.488			
	유능1	0.722	0.568			
관계성	관계3	0.651	0.337	0.760	0.821	0.606
	관계2	0.774	0.338			
	관계1	0.737	0.345			
즐거움	즐거3	0.633	0.541	0.827	0.848	0.585
	즐거2	0.809	0.373			
	즐거1	0.834	0.256			
성취감	성취3	0.68	0.401	0.710	0.797	0.572
	성취2	0.759	0.224			
	성취1	0.545	0.522			
금전적보상	보상3	0.718	0.295	0.855	0.871	0.630
	보상2	0.729	0.45			
	보상1	0.872	0.208			
타인의 인정	타인3	0.765	0.349	0.756	0.777	0.540
	타인2	0.744	0.42			
	타인1	0.697	0.512			

표 3. 구성개념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Table 3. Correlations among Constructs

요인	요인 간 상관관계수								
	1	2	3	4	5	6	7	8	9
분리불안심리적 통제	0.758								
성취지향심리적 통제	.005	0.912							
자율성	-.041	-.387**	0.795						
유능성	-.084	-.223**	.453**	0.779					
관계성	-.100	-.159*	.324**	.359**	0.778				
즐거움	.068	-.152*	.371**	.425**	.561**	0.765			
성취감	-.464**	.002	-.019	.086	.084	.070	0.756		
금전적보상	-.019	-.104	.246**	.332**	.579**	.780**	.084	0.794	
타인의 인정	-.023	-.129*	.310**	.327**	.622**	.674**	.097	.762**	0.735
평균	2.161	1.505	3.852	3.467	3.741	3.738	3.588	3.419	3.642
표준편차	.674	.694	.681	.875	.703	.768	.631	.794	.775

** p<0.01, * p<0.05

판별 타당성은 유사한 두 개의 개념이 뚜렷이 구별되는 정도를 검증하며, 이를 위해 Fomell 와 Larcker (1981)가 제시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과 Pearson 상관관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각 구성개념에서 AVE의 제곱 값이 해당 구성개념과 다른 구성개념 간의 상관관계수 값을 초과하면 판별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신뢰성 측정 결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항목은 없었으며, 신뢰성 검증에 사용된 Cronbach's α 값은 0.710에서 0.894로 분포되어 권장치(0.7 이상)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의 신뢰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요인적재 값 역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항목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분산추출 값을 이용한 판별 타당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설문 문항의 내적 일관성 및 타당성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표 2>는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측정모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후에,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초기 측정 모형의 적합도 검증은 총 27개의 측정항목으로 실시하였다. 적합도 검증은 기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GFI(Goodness-of-fit Index) 0.9 이상이며, NFI(Normed Fit Index) 0.9 이상, RMR(Root Mean Square Residual) 0.05 이하, CFI (Comparative Fit Index) 0.9 이상에 대한 p 값($>=0.05$)등을 사용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chi^2 = 608.198$ ($df=341$), $p = 0.000$, $\chi^2/df = 1.784$, GFI = 0.858, NFI = 0.844, CFI = 0.924, RMR = 0.041로 모든 지수가 권장치 이상으로 나타나 적합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본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가 연구 모형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4. 연구 모형 검증 결과

총 246개의 데이터로 측정모형의 타당성 검증 후 연구

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구조 방정식(SEM)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첫 번째 결과는 구조모형의 적합도 정도이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적합도를 살펴보면 $\chi^2 = 866.907$, $p=0.000$, $\chi^2/df=2.422$, RMSEA=0.076, NFI= .774, CFI=.852, GFI=.804, AGFI=.762, TLI=.832, IFI(Delta2) =.854로 나타나, 홍세희(2000)이 모델적합도 지수로 제시한 CFI, TLI, RMSEA를 중심으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을 때 연구 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는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성에 $\beta=-0.21$ 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계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율성에 $\beta=-0.414$ 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능성에 $\beta=-0.326$ 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성에 $\beta=-0.115$ 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결정성 중 자율성은 참여 동기 모든 요인과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beta=0.002$, $\beta=-0.057$, $\beta=-0.126$, $\beta=-0.018$ 로 즐거움, 성취감, 금전적 보상, 타인의 인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자율성과는 다르게 참여 동기 모든 요인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능성이 참여 동기 중 성취감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beta=0.182$, $\beta=-0.118$, $\beta=0.137$, $\beta=0.101$ 로 즐거움, 성취감, 금전적 보상, 타인의 인정에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 타인의 인정은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취감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채택된 가설의 경우 개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공모전의 성과는 좋지 않을 수 있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이 참여 동기 중 즐거움에 $\beta=1.238$ 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이 참여 동기 중 성취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 결정성 중 관계성이 참여 동기 중 금전적 보상에 $\beta = 1.712$ 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이 참여 동기 중 타인의 인정에 $\beta = 1.609$ 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Table 4. Hypotheses Testing Results

가설	경로	경로계수	결과
H1-1	분리불안->자율성	-0.09	기각
H1-2	분리불안->유능성	-0.21*	역채택
H1-3	분리불안->관계성	-0.016	기각
H2-1	성취지향->자율성	-0.414***	역채택
H2-2	성취지향->유능성	-0.326***	역채택
H2-3	성취지향->관계성	-0.115***	역채택
H3-1	자율성->즐거움	0.002	기각
H3-2	자율성->성취감	-0.057	기각
H3-3	자율성->금전적 보상	-0.126	기각
H3-4	자율성->타인의 인정	-0.018	기각
H4-1	유능성->즐거움	0.182***	채택
H4-2	유능성->성취감	-0.118*	역채택
H4-3	유능성->금전적 보상	0.137***	채택
H4-4	유능성->타인의 인정	0.101*	채택
H5-1	관계성->즐거움	1.233***	채택
H5-2	관계성->성취감	-0.067	기각
H5-3	관계성->금전적 보상	1.712***	채택
H5-4	관계성->타인의 인정	1.609***	채택

*** p<0.01, ** p<0.05, * p<0.1

V. 결론

최근 대학생들에게 자기개발은 취업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며, 자신의 진로나 취업을 위해 공모전에 도전하여 자신의 경력에 기여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자율성이 필요한 대학생은 여전히 부모의 영향이 큰 것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을 통해 공모전 참여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부모의 통제 및 관심을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실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가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자녀가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챙기려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의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지고 무슨 일이던지 부모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기를 바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자녀의 유능성에 대한 인지는 낮아질 수 있다. 대학생이 부모와의 분리불안 심리적 통제를 극복하고 스스로 잘하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으로 발전되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의 심리적 통제 중 성취지향 심리적 통제는 자기결정성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기대치에 벗어나거나 실수하는 등 여러 방향에서 관심을 가질 때, 부모의 심리적 통제를 인지하고 벗어나고자 하며, 자신 스스로 자신의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행동해나가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자기결정성 중 유능성은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만 성취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자기효능감 등이 높다고 느낄 경우 공모전의 참여 동기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는 것은 물론이며, 공모전의 결과로 나오는 금전적 보상에도 큰 만족감을 느끼고, 이로써 타인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공모전은 개인의 역량 뿐 아니라 동료의 역량이 함께 발휘되어야 하며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결과는 기대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연유에서 유능성이 높음에도 성취감이 낮은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자기결정성 중 관계성은 공모전 참여 동기 중 즐거움과 금전적 보상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모전은 일반적으로 팀으로 구성되어 참여하기 때문에 주변인과의 관계가 좋은 대학생일수록 타인의 인정 부분뿐만 아니라 공모전 참여 즐거움, 금전적인 보상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여진다.

위의 연구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점 및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는 공모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본 적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어떤 유형의 공모전 참여인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등 모든 연구 대상자의 개별적인 요인들이 고려되지 않은 채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따라서 개별적인 요인이 배제된 채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결과 해석의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참여

동기 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요인을 채택하여 활용하였으나 필수 요인을 선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음에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를 선행으로 진행한 후 본 연구가 진행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위의 한계점이 보완된 후속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생들의 개별 요인이 고려된 연구를 진행하거나, 좀 더 일관성 있는 집단의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둘째, 요인을 선택하기 위해 탐색적인 연구가 선행된 후 연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 [1] Barber, B. K,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Vol. 67, No. 6, pp. 3296-3319, 1996.
- [2] Barber, B. K, and Harmon, E. L, "Violating the sel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trusive parenting: How psychological control affects children and adolescents*, pp. 15-52, 2002.
- [3] Barber, B. K., Stolz, H. E., Olsen, J. A., Collins, W. A, and Burchinal, M, "Parental support, psychological control, and behavioral control: Assessing relevance across time, culture, and metho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147, 2005.
- [4] Becker, W. C,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o. 4, pp. 169-208, 1964.
- [5] Choi, J. A, and Lee H. E, "Perceived Parental Support, Behavioral Control, Psychological Control and Adolescent Depression : The Role of Self-Control and Self-Competence as Mediator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19, No. 1, pp. 295-326, 2008.
- [6] Chon, B. S, "The Structure of Repertoires for Tastes and Specifications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Image and Cultural Contents*, Vol. 24, No. 24, pp. 375-405, 2021.
- [7] Costa, S., Soenens, B., Gugliandolo, M. C., Cuzzocrea, F, and Larcan, R, "The mediating role of experiences of need satisfaction in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internalizing problems: A study among Itali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24, No. 4, pp. 1106-1116, 2015.
- [8] Crompton, J. L, "Motivations for pleasure vacation,"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 6, No. 4, pp. 408-424, 1979.
- [9] Darling, N, and Steinberg, L,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Vol. 113, No. 3, pp. 487-496, 1993.
- [10]Deci, E. L., & Ryan, R. M,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 19, No. 2, pp. 109-134, 1985.
- [11]Deci, E. L., & Ryan, R. M,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Vol. 11, No. 4, pp. 227-268, 2000.
- [12]Fingerman, K., Miller, L., Birditt, K., and Zarit, S, "Giving to the good and the needy: Parental support of grow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 71, No. 5, pp. 1220-1233, 2009.
- [13]Fornell, C, and Larcker, D. F,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
- [14]Gassenheimer, J. B., Sigauw, J. A, and Hunter, G. L, "Exploring motivations and the capacity for business crowdsourcing," *AMS review*, Vol. 3, No. 4, pp. 205-216, 2013.
- [15]Hong, S. H,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1, pp. 161-177, 2000.
- [16]Kang, H. C, "Discussions on the Suitable Interpretation of Model Fit Indices and the Strategies to Fit Model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5, No. 2, pp. 653-668, 2013.
- [17]Kim E. J, Hong S. H, and Kim, J. H,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academic achievement and preferences in cooperative vs competitive learning,"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4, No. 4, pp. 271-300, 2006.
- [18]Kim J. G, and Yang D. W, "An Empirical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hip of Undergraduate Student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the Start - up Idea Contest as a Mediator,"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4, pp. 477-487, 2016.
- [19]Kim J. K,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awareness of Life and Happiness Perceived by Youth Generation," *Korea Social Policy Review*, Vol. 25, No. 3, pp. 209-245, 2018.

- [20]Kim, A. Y, and Lee, M. H,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Depressive T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in Middle- and High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22, No. 2, pp. 423-441, 2008.
- [21]Kim, A. Y, young, "Educational Application of Motivation Theories and Issues for Future Research : Focused on Self - efficacy Theory,"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12, No. 1, pp. 105-128, 1998.
- [22]Kim, A. Y, "The Development of Academic Motiv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4, No. 1, pp. 111-134, 2008.
- [23]Kim, H. N, and Lee S. J,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university students: Multi-group analysis i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32, No. 4, pp. 165-186, 2019.
- [24]Kim, J. W, and Choi, M. S,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Attachment, Ego-Resilienc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0, No. 2, pp. 45-68, 2013.
- [25]Kim, Y. R, and Kang, J. H,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Social Problem Solving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2, No. 4, pp. 1-24, 2014.
- [26]Kowal, J, and Fortier, M. S, "Motivational determinants of flow: Contributions from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9, No. 3, pp. 355-368, 1999.
- [27]Lawler, E. L, "Pay and organization effectiveness: A psychological view," *NY: McGraw Hill*, 1971.
- [28]Lee, H. J, and Kim, H. S,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pplica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to Coaching," *Coaching Research*, Vol. 9, No. 3, pp. 5-25, 2016.
- [29]Lee J. H,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and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3, No. 3, pp. 133-154, 2013.
- [30]Lee, J. M, No, E. H, and Kim Y. H, "Korean Fathers' Parenting Styles, Parenting Stress, and Parenting Participation,"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20, No. 3, pp. 331-346, 2016.
- [31]Lee M. H, and Jung T. Y, "Examina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al Process Model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Vol. 14, No. 1, pp. 77-99, 2008.
- [32]Lee S. D, and Shin, N. N,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Anxiety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Role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Satisfaction Bu-mo-ui sim-li-jeog tong-je-wa dae-hag-saeng-ui bul-an: gi-bon-sim-li-yog-gu man-jog-ui yeog-hal,"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 25, No. 2, pp. 79-97, 2018.
- [33]Lee, S. B., Moon, J. H., and Park, C, "A Study on Spontaneous Improvement Plan for Secondary School Students: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3, No. 4, pp. 43-53, 2017.
- [34]Lee, S. J, and Yu, J. H, "A Causal Model among Self-determination, Career Stress,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Female College Students in Korea," *Asian Women Research*, Vol. 48, No. 2, pp. 35-63, 2009.
- [35]Levesque, C., Zuehlke, A. N., Stanek, L. R, and Ryan, R. M, "Autonomy and competence in German and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A comparative study based on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96, No. 1, pp. 68-84, 2004.
- [36]Luyckx, K., Soenens, B., Vansteenkiste, M., Goossens, L, and Berzonsky, M. 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dimensions of identity formation in emergi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Vol. 21, No. 3, pp. 546-550, 2007.
- [37]Ma, E. A, and Son, E. J,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and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The mediating effect of autonomy need thwarting and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5, No. 5, pp. 2035-2051, 2014.
- [38]Mussen, P. H, and Carmichael, L,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Wiley. Vol. 4, pp. 1-101, 1983.
- [39]Nelson, D. A., and Crick, N. R.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Implications for childhood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2002.
- [40]Park, E. S, "The Influence of Fathering Style on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Attachment

- of University Students,” *KEWMS*, Vol. 11, No. 1, pp. 47-63, 2008.
- [41]Park, J. W, and Kim, Y. T, “An Empirical Study of Effect and Improvemen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Vol. 22, No. 2, pp. 959-977, 2009.
- [42]Park, S. Y, and Lee, E. G, “Domain-specific Assessment of Psychological Control in Parents of Korean Adolescents :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0, No. 2, pp. 211-229, 2009.
- [43]Pettit, G. S., Laird, R. D., Dodge, K. A., Bates, J. E, and Criss, M. M, “Antecedents and behavior problem outcom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psychological control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Vol. 72, No. 2, pp. 583-598, 2001.
- [44]Sheldon, K. M, and Niemiec, C. P, “It’s not just the amount that counts: balanced need satisfaction also affects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1, No. 3, pp. 331-341, 2006.
- [45]Steinberg, L. *Autonomy, conflict, and harmony in the family relationship*, 1990.
- [46]Suh, K. H, and Lee, K. S, “Relationships between Life Stresses and Social Comparis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Vol. 15, No. 2, pp. 327-343, 2010.
- [47]Yun, S. W. Lee, B. E. Lee, J. Y. Lee, H. J, and Kim, J. Y, “Perception of Young Persons and Their Parents Regarding Parental Support for Housing Expense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30, No. 2, pp. 373-388, 2021.
- [48]Zhao, Y, and Zhu, Q, “Evaluation on crowdsourcing research: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Information Systems Frontiers*, Vol. 16, No. 3, pp. 417-434, 2014.